

종단장학승 제도 정비 인재양성 지원 활성화

■ 6대 교육원 평가와 과제 ⑨ 각종 자료편찬 및 전문연구자 지원<끝>

6대 교육원(2009.11~2014.10)은 자료편찬과 승가교육 전문연구자 지원에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특히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책으로 엮는데 독보적이었다. 각종 교재와 강의계획안, 예상문제집과 통계자료집, 연구자들에 대한 인물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다.

특히 승가대학용 강의계획안 발간은 표준교육과정 정착에 기여했다. 교육원은 2011년 초기, 선(禪), 대승불교와 한문불전, 계율과 불교윤리 등 표준교육과정에 맞춘 강사용 강의계획안을 제작, 개정판을 선보이고 있다. 과목별로 16강에 맞는 강의 내용과 형식이 담겨 있는 강의계획안은 한문원전의 뜻을 새기는 교육방식에 익숙한 교수 스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또 강의계획안에 맞춘 교육교재도 펴냈다. <불교영어> 초급과 중급, <계율과 불교윤리> <조계종 종헌종법의 이해> 등이 잇따라 발간됐다.

승가교육 현황과 변동,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원 통계자료집> 또한 6대 교육원 성과 가운데 하나다. 자료집에는 행자, 기본, 전문, 특수, 연수교육과 승가고시, 교육아사리 종단장학승, 전문연구자 및 종단 외국인승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현재 2012년, 2013년도 통계자료집이 발간됐으며, 내년 초 <2014년도 통계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스님과 재가자별로 구분해 불교학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원은 '불교 교학자 인물정보'를 구축해 초기, 대승, 선 불교 또는 염불, 외국어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학업성과를 한 데 모았다. 학기별로 대학원에 공문을 발송,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스님과 불자들의 정보를 취합하고 실시

간 업데이트한 결과를 강사나 연구 인력이 필요한 사찰과 승가대학과 공유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함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출간된 불교문헌 가운데 대표문헌을 선정해 영어로 번역해 책으로 내는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편찬사업도 진행 중이다.

표준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강사 강의계획안 제작배로

각종 정보수집 자료집 편찬
승가교육 통계집 매년 발간
불교 관련 연구자 DB 구축

전문연구자 연구비지원 확대
연 3억원 장학금 지급 계획

뿐만 아니라 승가교육 전문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공부하는 스님들의 연구 환경 개선은 물론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종단 교육기관 상주교육교역자 연구비 및 외래강사비 지급규정'을 만들어 승가대학이나 대학원 상주교육교역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제도를 정착시켰다. 상주교수에 한해 논문이나 번역물을 제출하면 추가로 연구비도 지급했다.

2010년부터 종단에서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교육아사

리제도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교육아사리는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스님들 가운데 교수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재야에서 연구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아사리에 위촉된 스님들이 종단으로부터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승가교육이나 종단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해 매년 성과를 제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위촉된 교수아사리 스님은 30여명으로 한문불전, 초기, 대승, 선 불교, 계율과 불교윤리, 참여불교, 불교사, 불전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 혹은 교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단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산하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승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국내외 대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스님들 가운데 현재 종단에 연구자가 부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종단 장학승제도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니라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덕분에 스님들은 안정적으로 해당 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사찰 승가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대상을 확대했다. 종단 장학승 제도를 시행한 이래 2011년 6명, 2012년 7명, 2013년 3명, 2014년 20명이 선발됐다. 금액도 2012년 1925만원에서 2013년 5150만원, 2014년 1억7400만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장학위원장 보광스님은 "장학위원회는 항상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장학승을 선발하는데 특히 공부를 마친 스님이 종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비중 있게 살펴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매년 3억 원가량으로 장학금을 확대해 미래 한국불교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 480억원

총본산성역화 승려복지 집중

총무원 '세입 세출안' 편성
200회 정기총회 상정 계획

조계종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이 일반회계 230억여 원과 특별회계 240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480억여 원으로 편성됐다. 총무원은 지난 10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관에서 제39차 종무회의를 열고 '불기 2559(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총무원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 등 제34대 집행부 중점 전략과제 실행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총본산성역화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로 2억5800만원이 신설됐고, 승려복지 특별회계도 올해보다 1억2800만원 늘어난 27억800만원, 중앙·교구 균형발전위원회 사업비로 2212만원이 책정됐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2%(5억여 원) 늘어난 235억3580만6000원으로 종교용지 관련 5억 원을 편성해 특별회계로 전출시켰고, 일반직 종무원에게 지급하던 휴일근무수당을 전액 삭감했다. 또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위한 예산 3억 원과 출

가특별법에 의한 장학금 5000만원이 책정됐다. 중앙분담금은 올해와 같은 36억8850여 만원으로 동결하고, 서울 약사사가 직할사찰로 지정되면서 직할분담금은 올해보다 2억 원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이 늘어난 교육불사, 신도교무금, 총당금적립금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3%(28억여 원) 증가한 239억7140만8690원으로 책정됐다. 김용구 총무원 기획팀장은 "중앙분담금을 동결한 가운데 각종 세입감소 및 중점 전략과제 집중에 따라 일반사범비, 인건비 등을 축소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면서 "종무원의 급여는 보전하면서 복리후생 차

원에서 지급되던 휴일근무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권장하는 등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등으로 올해보다 22% 증편된 재무부를 제외한 부서별 예산도 줄었다. 종정에 경실, 원로회의, 법규위원회 등 6개 종정기관이 올해 대비 0.7% 감액됐으며, 기획실 12.7%, 호계원 12.7%, 총무부 2.1%, 호법부 5.4%, 사서실 4.6%, 중앙박물관 4.6%, 문화부 3.7%, 포교원 0.6% 등 인건비와 사업조정을 통해 예산이 삭감했다.

한편 이 예산안은 오는 11월 개원할 제200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o@ibulgyo.com

“종무실장 임기 2년은 돼야”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종덕 장관에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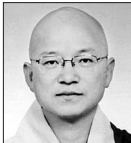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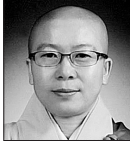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월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김종덕 장관은 먼저 “34대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저희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문체부에서 다루는 분야 가운데 종교분야 만큼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부처가 없다”면서 “종교업무에 담당하던 분이 종무실장에 새로 임명된 만큼 앞으로 업무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장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면서 “문체부는 문화, 체육, 관광 등 다른 부처에 비해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노고가 많다”고 화답했다. 이어 “종무실장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2년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 임기 동안은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8월 임명된 김 장관은 영상 프로덕션 대표와 감독, 한국디자인학회장,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과 영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허정철 기자 hjo@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월31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종교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종무실장의 임기를 최소 1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10월29일 종무회의)						
						
	원각스님 공주 회암사	법보스님 서울 학도암	해운스님 서울 경곡사	함결스님 서울 천축사	상운스님 서울 청통암	지하스님 인천 범용사
						
영담스님 부천 석왕사	현승스님 문경 봉서사	자도스님 경주 덕숭사	준법스님 횡성 보광사	반산스님 양산 원각사	정법스님 영암 지장사	법오스님 진도 쌍계사

석전 박한영스님의 사상 및 업적에 관한

제2회 석전 학술논문 대학(원)생 공모전

백파사상 연구소에서는 불교를 공부하는 젊은 후학들에게 석전 박한영스님에 대한 행적 및 사상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석전 박한영스님의 사상과 행적이 근세 불교에 미친 영향을 고찰 해 보고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술논문을 공모합니다. 관심있는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공모 바랍니다.

- | 응모자격 | 국내 · 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재학생 또는 휴학생
- | 응모주제 | 석전 박한영스님의 근대 불교교육의 업적과 관련된 학술논문
- | 응모일정 | 논문헌상 공모 공고 2014. 10월중
최종논문 접수 2014. 12. 15
논문 심사 및 발표 12월경
- | 심사기준 및 방법 | 주제의 명료성과 독창성 (20점)/ 선행연구의 검토정도 (10점)
논리 및 체계의 일관성과 구체성 (30점)/ 반영 가능성 (40점)
심사위원은 백파사상연구소 전문위원 및 관련연구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임
- | 시상내역 | 금상, 은상, 장려상
- | 논문양식 | 워드프로세서 (HWP, MS-WORD)로 작성한 A4용지 20매 내외의 서술식 논문
논문요약문, 색인어, 각주, 참고문헌등 기본적인 학술논문 형식을 갖추어야 함

- | 사전참가 접수방법 | 사전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접수 (iambuddha@hanmail.net)
사전참가신청서는 연구원 카페(http://cafe.daum.net/baekpasasang)에서 다운받기 바람
- | 최종논문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최종논문, 요약문 (2p), 재학증명서(스캔한 파일 혹은 별도 우편 제출)
※ 사전 참가신청 없이 최종논문만 제출 할 경우 참가신청서도 함께 제출요망
제출처 : 전자메일 로 접수 (iambuddha@hanmail.net)
- | 유의사항 | · 입상자는 재학(휴학)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미제출시 입상 취소)
·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되었거나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타 공모전 수상논문기 제출된 학위논문등 각종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던 논문은 응모할 수 없으며, 관련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논문 및 서류는 일정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
· 수상논문은 연구원 간행물에 게재하고 연구원 카페에 원문을 게시함
- | 심사결과 통보 발표 | 12월 11일 개별통보 및 연구원 카페(http://cafe.daum.net/baekpasasang)에 게재 수상자는 석전 학술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함 (일정 추후 통보)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백파사상 연구소

접수 및 문의 : 담당자 미광(백파사상연구소 소장 : T. 010-3740-9080 / T. 02-764-1380)